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파시즘은 언제 나타나는가.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때다. 당대에 수없이 업그레이드 된 회합 민주주의나 여러 겹의 시민 보호장치를 가진 로마 공화정, 정치(精微)한 교황청의 히에라르키 아래서는 파시즘이 없다. 무솔리니의 이태리, 프랑코의 스페인, 레닌의 러시아, 장계석의 중화민국 나세르의 이집트, 호메이니의 이란은 모두 기성질서가 붕괴된 뒤 불안감을 느끼는 인민들이 만들어준 파시즘의 역사다. 군중은 발코니에 나타나는 영웅에게 열렬히 환호하며 가까이 광란한다. 연호하는 군중은 자신을 모습에 파시스트라는 사실을 모른다.

급격한 신분상승과 부패

파시즘은 대개 역적이다. 힘의 공백은 일개 산악부대를 국방장관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도자의 운전수를 실력자로 만들기도 한다. 사라진 권위를 대체할 새 권위가 삼억은 채 유행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사불란할 지언정 무식하다. 지성은 모독을 당하기 일쑤고 예술은 죄악시 된다. 슬로

건과 선전선동만이 큰 깃발로 나부낀다. 왜 아니겠는가. 부패도 장광한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한 박정희 소장의 무대타도 결국 파시즘의 산물이다. 국부 이승만이 강

386 파시즘을 혐오한다

제퇴장 당한 뒤 나타난 힘의 공백이 그를 불렀다. 전두환 신군부의 독재도 박정희가 삼해당한 뒤의 공백이 부른 파시즘이다. 광란의 군중역은 TK가 맡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컬러텔레비전의 등장과 올림픽, 프로야구로 상쇄됐다. 여기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파시즘 정권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학생운동이 스스로 파시즘의 성격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 주역들은 바로 386이었다. 그 전까지, 이른바 긴급조치 세대들이 벌이는 학생운동은 어쩌보면 제정러시아 말기 러시아 인텔리겐차 운동과 닮았다. 학생운동의 주역들은 철저히 개별 자기학습

을 통해 의식화 과정을 거쳤다. 거리에 나서는 데모대의 한명 한명은 모두 나름의 사상가지자 철학자였다. 그러나 386들은 달랐다. 물론, 강제집중된 가혹한 탄압에 맞서는 생존수단으로 그들은 철저한 조직화를 택했다. 사상논쟁은 지도부의 전유물이었고 화염병을 던지는 '전사'들은 전투력만 제공하면 됐다. 그 결과는 무서운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전대협 의장은 혁명영웅이요 시위학생들은 불세비키나 팔랑헤 당원을 능가하는 희생·인내·절대복종의 화신이었다. 전

남대의 '5월대', 조선대의 '녹두대'는 특공부대원과도 같았다.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 사건이 터졌을 때 보여준 그들의 능력은 놀라운 것이었다. 이씨의 최종행적이 의문에 싸여있을 때 이씨를 태워줬던 택시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자 조선대 지도부는 그 택시를 찾기 위해 녹두대원들 2인1조로 광주시 전역에 배치했다. 결과는? 반나절만에 그 택시를 찾아냈다. 녹두대원들은 각자가 맡은 포인트에서 문제의 택시번호를 찾는 바늘찾기 작업을 아무렇지 않게 해낼 정도였다. 때마침 불어닥친 NLI론과 주사파의 득세속에 386들의 운동논리는 "당이 결정

하면 우리는 한다"는 조선노동당의 논리 그대로였다. 도그마(dogma)화한 운동논리 아래 토론은 무의한 것이요 반성은 회의론으로 지탄받는 풍토, 그 무지막지한 파시즘이 그들의 청춘을 채웠다.

이권엔 속속들이 개입

97년 민주화투쟁을 정점으로 그들이 싸워야 할 거약(巨惡)은 사라졌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이른바 '사회생활'이란 걸 했다. 투쟁할 대상을 잃은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란 쉬웠을 리 없다. 그들에게 2002년 대선은 하나의 새로운 전선(戰線)이 됐다. 그리고 지금, 386들은 세상을 장악했다. 슬픈건 그들에게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다. 파시즘은 행동특성으로 하는 집단의 필연이다. 이권이 율만한 모든 일과 장소에 그들은 나타난다. 끊임 없이 인사에 개입해 '의리 넘치' 나눠먹기에 골몰한다. 말을 듣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협박도 서슴치 않는다. "배 껌드리지요" 발언은 아무리 당사자인 386 비서관이 부인해도 은근히 사실로 치고있다. 심지어 성인오락실 상품권 사업에 로비를 자청하며 돈을 요구한 386들까지 들춰지고있다. 이젠 나이가 들어 486이 된 그들, 퇴장할 시기가 됐다. 버티면 더욱 혐오스러울 뿐이다. <편집부특정> kycho@kwangju.co.kr

시설

정부 국제 일부 지방세 이양 적극 검토하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주택거래세(취득세·등록세) 인하에 반발, 공동대응에 나섰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어제부터 국무총리와 국회 상임위원장, 4당 대표 등을 방문하며 지방세인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세급 인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국제의 지방세 전환 등 제도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열악하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마저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주택거래세는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16개 시·도의 주택거래세 총액은 지방세입 총액의 52%에 달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일반적으로 이처럼 비중이 높은 거래세를 인하한 것은 지방분

권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도적 대안이 없는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지방만 죽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취득세·등록세 감경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급 인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지자체 재정을 압박하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지나친 세수 감소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이 심화되고 지방의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차제에 국제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부세 지원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기피 기업 금융...경제 살릴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 투자는 하지 않은 채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새로 설립된 기업의 수도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 둔화 조짐 속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창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12월 결산 제조업체의 지난 6월 말 현재 유보율이 평균 597.61%로 6개월 새 23.25%포인트나 높아졌다. 유보율은 벌어들인 돈 가운데 얼마를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따라서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와 같은 생산적 부문으로 돈을 흘러들여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달 신설법인 수도 3천824개로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기업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최근 국내외 여건은 지속되는 '3고(高) 현상, 미국 경기의

침체 가능성, 오라카라하는 경제 정책, 불안한 노사관계, 북핵 문제 등 기업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창업을 하겠는가. 문제는 기업의 투자 및 창업회피는 일자리 감소→채경경기 악화→불황 장기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차치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의 늪에 빠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여전히 하위 경기로 낙관하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점마저 실종되고,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당·정·청 간에 엇박자만 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는 이를 때일수록 수출목표액이나 성장률에 매이지 말고 기업의 투자 의욕을 살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기업이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데 머뭇거리려 유가 없다는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최희동. 요즘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시대와 가치관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구습의 정치행태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며, 민심을 귀담아듣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렇다. 조 광조는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 하였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정치가이며 선각자라는 사람도 있고, 실패한 개혁주의자라는 사람도 있다. 그는 등용 4년 만에 대선에 이르는 과격적인 승진을 하였으나 너무 급한 개혁정치로 임명되어 피곤하게 하여 종종 14년(1519년) 무죄생활 1년 만에 사약을 받고 죽게 된다. 이 율곡마저도 '조광조의 뜻은 훌륭하였으나 그의 행동은 지나치게 성급하였다'고 논할 정도였다. 또한 그 스스로

정치에도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도 죽음을 앞두고 '선비는 자기와 같은 부류라 해서 무조건 친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부류라 해서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씀을 되새겼다고 하니 정치인은 서로 다른 생각이라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다. 3김 시대의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지금의 참여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개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진 이념을 중시하며 과거사에 매달리고, 상대 의견을 무시하는 아집과 독선으로 양극화를 초래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아마추어 민생정치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며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와 전남 역시 마찬가지다. 어려운 지역경제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서민들을 챙겨야 할 정치지도자들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별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익자지껄한 조문 보다는 조용하고 엄숙한 추모를

지난 주말 직장 여직원의 부친상을 당해 빈소를 찾았는데, 딸만 돌린 가정이라 상가는 적막감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그런데 바로 옆 다른 빈소에는 가족이 많아서인지 조문객들로 북적거렸는데, 일부 조문객들은 화투를 치기도 했다. 유족들이 슬픔에 잠겨 곡을 하고 있는데

광주일보를 읽고 '달라진 교육환경...' 기고에 대한 재반론. 광주일보 8월 14일자 17면 "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 기고에 대한 재반론'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내용을 읽고 쓴다. 지난 8월9일자 '교장공모제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기고한 진의는 현행 승진제도 하에서 임용된 교장은 복지부동의 무사안일주의로 일관된 학교경영에 비전없는 무능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가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필자가 알고있는 학교현장의 실상을 밝힌 것이다. 즉 현직 학교장들이 나름대로 교육발전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실상이자 달라 폄하되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의도에서인 것이다. 따라서 본란에서 어떤 제도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리자는 의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정리를 끝으로 다시금 이를 논의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둔다. 교장공모제에 대한 찬반논의는 주장하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을수 없다. 는는 당사자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상황인식이 시대적 변화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필자는 교육의 현실적 상황을 외면하고 구태의연한 인식에 집착하여 변화의 추이에 둔감하거나 보수적인 사고방식에만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교육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제도나 정책의 개선이란 남달리 많은 관심으로 고무하고 찬성하며 부추기는 입장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선생이다"고 말할 만큼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친화감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대개 정부의 어떤 제도 개혁이나 혁신안의 추진에 대한 찬반의 극렬한 주장이 집단이거나 개인이기에 상반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되는 집단행동에까지 치닫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교장공모제에 대한 유보의견을 제시하고

분재에 식물 이름표와 주요사항 기록 출하했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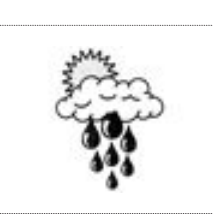
관상수를 사려고 화원에 들렀다가 주인에게 "이 나무의 이름은 뭐가요?"라고 물었는데, 주인은 뒷머리만 긁고 있었다. 일일이 이름을 다 알지 못한 듯 했다. 얼마 전 들렀던 모든 나무마다 이름·이름의 유래·재배에 따른 온도도와 습도·등나무와 식물의 사육관리 사항이 상세히 기록된 안내관을 세웠던 화원 생각이 났다. 이에 한 여성은 안내관을 보고'크리스마스 로즈'라는 꽃 이름을 외우면서 지나갔을 정도였다. 손님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이다. 꽃도 마찬가지다. 꽃을 파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또다시 그곳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님들께는 비결인 듯 싶다. 분재나 관상수 나무에 이름표와 주요 관리사항들을 기록하여 출하하면 좋을 것 같다. <이순애·광주시 북구 충효동

無等鼓

삼국지에는 삼고초려(三顧草廬)라는 고사로 유명한 제갈량의 신출귀몰한 계책이 많은 부분을 장식한다. 하천을 이용하여 조조군을 물리친 번성전투, 대아 화살촉이 화살 10만개를 만들어낸 계책, 배와 배를 묶도록 하는 연환계에 화공법을 쓴 계책, 서북쪽 밖에 없는 동지선상에 거센 동남풍을 일으킨 술법 등. 상대 조조군을 놀라 자빠지게 함은 물론 동맹군인 손권 휘하 주유군의 일을 빼기에 충분한 신묘함이다. 하지만 공명의 술법은 기본 병법에 날조를 적용한 것 뿐이다. 연제 비가 오고, 짙은 안개가 끼고, 때 아닌 동남풍이 불고 등 천문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

일본 정벌에 나섰던 몽골제국의 대군은 규슈를 갈타한 태풍으로 두 차례 모두 수장됐다. 나폴레옹의 프랑수아군은 러시아 정복에 나섰다가 흑안에 괴멸됐다. 이처럼 날씨의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바꾸며, 인류의 삶과 함께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날씨가 산업현장에서 경영의 큰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한 지구환경연구소가 엇그제 그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미국 상무부 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날씨에 따라 수익이 변하는 산업이 우리나라는 국내 총생산(GDP)의 52%를 차지하고, 일본은 80%에 이른다

날씨 경영



145억원에 불과한 우리나라 기상산업 규모가 점점 커져 일본(5천억원)이나 미국(1조원) 수준까지 접근할 것이라 전망했다. 기업의 날씨위험도 분석, 날씨에 따른 제품의 매출규모, 날씨 기회요인 분석 등 '날씨 경영'을 본격화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